



보도시점

배포 즉시 보도

배포

2024. 1. 5.(일)

재외동포청 주최 한국이해 과정 수료 재일동포 차세대들 “한국어 계속 배우겠다”

- 청년·청소년 16명, 모국서 한국어 및 역사 교육·문화 체험 진행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이 차세대 재일동포들을 초청해 최근 진행한 ‘한국이해과정’에서 참가자들은 “앞으로 한국어를 계속 배우겠다”고 한목소리로 전했다.
- 이번 과정은 2024년 12월28일 시작해 1월5일까지 이어질 것이고, 재일동포 청년과 청소년 16명이 참가했다.
- ‘한국이해과정’은 한국의 언어와 역사 교육, 문화 체험 등을 하면서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. 이번 겨울과정에는 일본 각지의 재일동포 차세대가 초청됐다.
- 참가자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고, 전통 악기를 통해 한국의 음악을 익혔다. 또한 모국의 분단 현실을 비무장지대(DMZ)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며 역사적 아픔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특히, 전통악기 과정에서는 재일교포 3세로 국악 및 타악 분야에서 국내 외를 막론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음악가 민영치* 씨가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후배들을 위해 강사로 참여했다.
- * 1970년생, 일본에서 생활하던 중 국악을 배우기 위해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수학했다. 이후 타악을 위주로 활동하며 세계사물놀이겨루기 최우수상(설장고)을 수상했으며, 우리 국악과 재즈를 융합한 ‘신한악’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다.
- 수료식에서는 김호준(24) 연수생이 재외동포청장상을 수상하였다. 김호준 연수생은 “한국어로 말하고 듣기는 가능해도 읽고 쓰기는 어려웠는데,

이번 과정을 통해 많이 배웠고,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.”
라며, “앞으로도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.” 라고 전했다.

- 앞서 입교식에서 참가자 대표를 맡았던 박진기(21) 연수생은 “일본에서 자란 까닭에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번에 지원했다” 며 “한국이해 과정을 이수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에 도전해야 겠다고 결심했고, 앞으로는 조종사가 되어 한일 민간교류를 돕고 싶다” 고 포부를 밝혔다.
- 최연소 참가자인 오카다 코코미(12) 연수생은 “외가 친척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류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다” 며 “일본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” 고 말했다.

□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3일(금) 열린 한국이해과정 수료식에서 “차세대 동포 여러분이 한일 수교 60주년을 넘어 새 시대의 주인공” 이라며 “한인 정체성과 일본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분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만들어 나갈 양국의 미래가 기대된다” 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정선호	032-585-3172
		담당자	사무관	신상철	032-585-3252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